기독교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소고(小考)

박 창 우(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요 약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살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과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독교복지에서는 우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성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고, 현 시대의 사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복지의 목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개입 즉,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개입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천국에서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복지, 사회복지

Ⅰ. 서론
Ⅱ.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과 사회
Ⅲ. 기독교복지의 목적 - 하나님 형상의 회복 & 하나님 나라의 확장
Ⅳ. 결론

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기독교복지 혹은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독교복지에 대한 학문 체계는 아직도 학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근간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박종삼, 2003: 12),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의 가치와 이념, 사상 및 철학, 목적과 목표, 주체, 대상, 실천방법, 재원 등과 같은 학문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1].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은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기독교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2].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들 중 먼저 목적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목적이 확립되어야 그 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목적'은 '방법'과 '실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목적의 사전적

1) 사회복지의 규범적 구성 체계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사상과 철학과 관련된 1차적 영역, 사회복지의 목적과 목표와 관련된 2차적 영역, 주체, 대상, 방법, 재원과 관련된 3차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이인회, 2003: 99-100).

2) 기독교복지의 1차적 영역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복지의 방향(박창우, 2009: 147-175)'이라는 논문을 참고할 것

의미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다. 나아가려는 방향 없이 어딘가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오히려 무모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다르고 싶은 곳, 실현하고 싶은 상태를 정한 후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순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우선 기독교복지의 목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기독교복지의 목적에 대한 확립이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기독교복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3].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독교복지의 목적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독교복지의 목적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사회복지와 기독교복지의 목적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목적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복지는 인본주의적, 유물론적, 정신분석학적, 행동주의적 이론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들은 모두 인간과 사회의 속성 중 일부분에만 지나친 초점을 맞추며, 성경적 관점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4]. 이와 같은 비성경적 이론들과 이념들의 영향을 받은 사회복지실천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기독교의 전제 혹은 가정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이는 결국 기존의 사회복지와 기독교복지의 목적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야기한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실천방법과 실천모델, 주체, 대상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독교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의보다 우선 기독교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독교복지의 목적에 대한 고찰은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 동안의 기독교복지와 교회사회사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회사회복지활동 실천 사례, 프로그램 개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과 같은 교회사회복지 활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창우, 2007: 6).

4) 정희영, 정희정(2008: 267-306)의 논문에 의하면 유아교육학에 많이 적용되는 이론들이 유아교육실천에 있어 유용한 원리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복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독교복지가 추구하는 목적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 혹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복지라 말할 수 없다[5]. 기독교복지란 인간과 사회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박창우, 2009: 163). 따라서 기독교복지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인관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른 말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을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이승구, 2004: 16),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Creation), 인간의 타락(Fall),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Redemption)이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양승훈, 2005: 47-48).

결국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복지의 목적을 정립해야 하고, 기독교복지의 목적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기독교복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기독교복지는 기본

5)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복지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교회에서 실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을 기독교복지라 부를 수는 없다.

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6].

셋째, 앞에서 살펴본 인간과 사회의 의미에 기반 하여 기독교복지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수립해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복지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기독교복지의 목적에만 초점을 둘 것이고, 기독교복지의 주체, 대상, 방법, 재원 등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Ⅱ.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과 사회

1.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란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이다(Sire, 1976: 8).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여 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인간은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양승훈, 2005: 35).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세계관 중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말한다(이승구, 2004: 16).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

6) 사회복지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how)'가 아니라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what)'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과 사회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박창우, 2009: 150).

고 있다.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이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온 기독교 세계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승훈, 2005: 53-109; 이승구, 2004: 26-50; Wolters, 1985: 25-96).

우선 창조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적 기초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계에는 자존적 창조주가 있으며 창조주 외의 모든 존재는 의존적 존재들로서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것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그 어떤 것도 창조된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성경이 보여주는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창조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잘 조화되어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창조의 관점은 세상의 만물이 우연적 조합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물에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역사 전체에 걸쳐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원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범죄 하였고, 결국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죄의 영향은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여 지성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의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감정에서는 악한 만족의 탐닉이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영적, 지적, 육체적 피폐와 더불어 모든 자연계의 피폐도 수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피조 세계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타락은 인간을 포함한 창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과 천지만물을 향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구속은 피조 세계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회복이란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혹은 되찾는 것을 의

미하고, 성경에서 구속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모두 본래의 선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복이란 말은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화해는 하나님과 죄를 저지른 인간과의 화해이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화해를 요청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덕분에 인간은 범죄 함으로 훼손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조망하고 있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인간

창조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특징과 하나님 형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역동적인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 특성을 갖는다(양승훈, 2005: 65). 둘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설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Erickson, 1989: 112).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이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Hoekema, 1986: 28). 인간은 인간 밖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로봇과는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며 피조물로

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동시에 능력을 갖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이다. 이를 문화소명(cultural mandate)이라고도 하는데, 문화소명이란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문화소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인간,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과의 바른 관계는 자연을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특징과 피조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바른 인간관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바라보는 것이다[7].

한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의 특성과 피조물의 특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을 가짐으로써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불안[8]을 느끼게 되는 존재이다.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일이며(김세윤, 1997: 16-19),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적 특징인 자유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기의 유한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자신의 유한성에 기초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잘못된 욕망에 몰입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Niebuhr 1941a: 180-182). 인간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

7)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적용되는 인본주의이론, 행동주의이론, 정신분석이론 등은 인간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들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본주의이론은 하나님 형상의 특징만을 강조한 이론이고, 행동주의이론,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피조성만을 강조한 이론이다.

8) "불안은 유한한 자기가 자기를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 앎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성처럼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극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유한한 존재인 인간도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Kierkegaard, 1844: 67)

신의 능력 등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였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는 행위였다(김세윤, 1997: 20). 이렇게 죄의 본질인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타인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진정한 자아로부터도 소외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적인 소외로 인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다(김세윤, 1997: 20).

결국 죄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고,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9]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구속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베풀어진 것이지만 인간이 이것을 의지적 결단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함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본래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켰다. 이와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다.

9)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인간은 순간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이미 구속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멀고 먼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양승훈, 2005: 101).

3.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사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와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인간의 성격, 발달, 행동, 욕구 등 인간의 모든 측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간의 행복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질, 즉 사회의 욕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순응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얼마나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권중돈·김동배, 2005: 23). 따라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체계적 노력인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기독교복지란 인간과 사회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뿐 아니라 사회 역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사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창조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는 온 우주에 미치며, 따라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상이며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책, 제도, 법률, 문화 등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궁극적인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는 뒤틀려진 것도, 왜곡된 것도 없이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은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각종 제도와 권세를 제정하신 후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인간은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간 타락의 영향으로 피조 세계의 각 영역들은 가상적인 자율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조 세계의 각 영역들 간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이 발생했다(양승훈, 2005: 225). 다시 말해 피조 세계는 원래 선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타락 상태에 빠진 사회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다. 구속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의 범죄로 왜곡된 피조 세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타락의 범위가 피조 세계 전역에 걸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구속의 범위는 타락하고 피폐한 모든 피조 세계(가시적인 세계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적 세계, 사회구조 등)를 포함하고 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양승훈, 2005:

102-10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인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현 시대에 완전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실체인 동시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약속으로서 현재인 동시에 다시 올 미래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현재적이거나 순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존재하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10].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분투해야 마땅하다[11]. 인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샬롬(하나님 나라)이 임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Wolterstorff, 1983: 149), 샬롬(하나님 나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12].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10) 이는 D-day와 V-day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D-day는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던 1944년 6월 6일, V-day는 독일군 사령관이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된 1945년 5월 7일이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사실상 전쟁은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었으나, 전쟁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패퇴하는 독일군이지만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여전히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전쟁 결과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탄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질지 이길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결과가 결정된 전쟁이다. 이와 같이 D-day와 V-day의 개념을 빌려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다(양승훈, 2005: 105-107)

11) "비록 구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그 자유의 실행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된다.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Hoekema, 1986: 390)

12)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는 희망은 가질 수 없다. 그 나라는 영원에 속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목표라고 한다면 역사

인간의 역사 내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근사치적 접근을 위해 분주히 노력해야 한다[13].

요약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모든 관점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는 뒤틀려진 것도, 왜곡된 것도 없이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은 사회였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구속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현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기독교복지의 목적 - 하나님 형상의 회복 &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창조 - 타락 -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현재의 사회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성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한다면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살 수 있을까? 아마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14].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

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Temple, 1942: 82).

13) "완전한 사랑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근사치적 접근은 가능하며, 인간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Niebuhr, 1941b: 323-324)

14) 이와 같은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 때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거할 곳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한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초점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하기라도 한 듯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룩하겠다는 탐욕과 교만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만일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거할 곳 즉,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훈련 장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 때에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 장소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하나님의 원칙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15].

그 동안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비과학적, 비중립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복지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기독교복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독교복지란 미시적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고,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기독교복지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은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회 안에서 사는 인간은 그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인간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도화 된 악과 구조적 불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를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복지의 거시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독교복지의 목적은 미시적으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제한되고, 구속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였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Augustinus, 401: 20)."

Ⅳ. 결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성종현, 2001: 11).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살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 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미약했고,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과학적, 비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인간과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기독교복지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현재의 사회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또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은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회 안에서 사는 인간은 그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인간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독교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시적으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권중돈·김동배 (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23.

김세윤 (1997),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6-20.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방안,” 『교회사회사업』, 제1호, 12.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

박창우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복지의 방향,”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1호, 147-175.

성종현 (2001),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1.

양승훈 (2005),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35, 47-48, 65, 98, 105-107, 225.

이승구 (2004),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16.

이인희 (200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영역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Vol. 6 No. 2, 99-100.

정희영, 정희정 (2008),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신앙과 학문』, 제13권 제3호, 267-306.

Augustinus (401), *The Confession,* 김기찬 역 (2000), 『고백록』, 경기: 현대지성사. 20.

Erickson, Millard J. (1989), *The Doctrine of Humanity & Sin,* 나용화 외 역 (1993), 『인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12.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1990),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8, 131-145, 390.

Kierkegaard, Soren (1844), *The Concept of Anxiety*, 임규정 역 (2000), 『불안의 개념』, 경기: 한길사. 67.

Niebuhr, Reinhold (1941a),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ume 1,*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 180-182.

_____ (1941b),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ume 2,*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323-324.

Sire, James W. (1976),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8.
Temple, William (1942), *Christianity and Social Order*, 김형식 역 (2000), 『기독시민의 사회적 책임』, 서울: 인간과복지. 82.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200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 69.
Wol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8),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서울: IVP. 149.